

# 혼탁한 세상 백련의 향기에 빠지다

## 청운사 하소백련축제, 한방천연비누 체험 등... 8월 15일 까지

전국 최고의 백련 재배단지 하소 백련지에서 화려한 연꽃향연이 펼쳐진다.

‘하소 백련축제’가 7월 3일 김제 시 청하면 청운사 하소백련지에서 개막했다. 축제는 13만 여㎡의 국내 최대 규모인 백련 서식지에서 개최된다. 연꽃과 고즈넉한 고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축제는 휴가철을 앞두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흰꽃이 세상을 구한다는 ‘백화제세(白花濟世)’를 주제로 진행되는 축제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연, 백련으로 만든 음식도 시식해 볼 수 있다.

새우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해 ‘하소(蝦沼)’라 이름 붙여진 청운사의 백련은 다른 백련과는 달리 순수하게 청백색만을 나타내고 있다. 독성이 없고, 다른 연에 비해 수 없는 향과 맛을 자랑하고 있어 각종 하소백련차, 하소백련빙장 등의 특산품으로도 유명하다. 백련칼국수, 백련부침, 백련자반, 백련죽, 백련두부, 백련동동주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백련음식도 준비돼 있어 찾는 이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활력



하소백련축제가 김제 청운사 하소 백련지에서 7월 3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 공연은 백련 서식지 내에서 진행됐다.

소를 주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축제에서는 주말마다 백련차회의 행차시연, 승무, 어산편패 등의 공연과 김석환 등 설치미술작가들의 백련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미술품이 전시된다. 또 흙으로 자유로운 표정 만들어 구워보기, 한지 부채 전통문양 채색체험, 연잎 왕관 만들기, 한방천연비누

만들기 등의 부스도 마련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청운사 주지 도원 스님은 “물질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이 자연에게 해야 할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백련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전식 김제시장은 개막축사에서 “연꽃의 의미는 어지럽고 혼탁한 사바세계 속에서 향기로운 꽃을 피워

맑은 세상을 비추준다”며 “김제시를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온 세상을 향한 백련을 활짝 피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소백련축제는 개막공연으로 구원의 몸과 마음을 표현한 서승아 퍼포먼스와 전북예술단원의 대금, 가야금산조, 풍물놀이, 색소폰 연주가 공연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보행보조기 전달 고창군노인복지회관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도원)은 7월 6일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보조기 30대를 전달했다.

보행보조기 수급 대상은 노인일자리아동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돌봄사업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이다.

보행보조기를 받은 노차순 어르신(83세, 고창군 흥덕면)은 “지팡이를 짚으면 한쪽으 로만 힘이 쏠려 힘들었는데 이제 힘들지 않고 밀면서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기뻐했다.

도원 스님은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평소 거동이 불편해도 비싼 보행보조기를 장만하지 못했다.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가 튼튼한 두 발이 되어 조금 더 수월하고 편하게 활동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행보조기는 KT&G복지재단에서 지원했다.

손병현 대구지사장

###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전주 운전기사 불자회

## “거리의 포교사란 자부심 가져요”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행사장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택시행렬이다. 대형 연등, 장엄 등으로 단장을 한 택시 행렬의 뒤를 따라 연등행렬은 이어진다.

이 택시행렬 차량은 한국 운전기사 불자회 전주지역회(회장 이우철, 이하 전주운불련) 회원들의 차량이다. 전주 운불련은 전주 시내 곳곳에서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 활약하고 있다.

등 전북지역의 주요도시의 연등 축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 이날을 위해 회원들은 행사 2-3달 전부터 차량을 장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기위해 고심한다. 이렇게 장엄한 차량은 시내 곳곳을 누비며 연등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운불련 회원들의 차량에는 자비함이 있다. 승객들이 자비함에 거스름돈을 넣도록 한다. 이렇게 모아진 돈은 지구촌공생회 정기 후원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왼쪽부터 이우철 회장, 이석우 부회장, 양성문 교무, 박기석 총무

전주운불련은 김제 금산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1994년 창립했다. 전주운불련은 거리의 포교사로서 말없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 선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들은 쉬는 날이면 차량 정비 등 안전운행을 위해 철저한 정비시간을 갖는 한편 시간을 쪼개 틈나는 대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다.

전주운불련의 활동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도시락 배달이다. 회원들은 쉬는 날을 이용해 순번을 정해 하루 80여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도시락을 배달하며 이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 담담 사회복지사에 전달하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이들의 임무다.

전주운불련의 활동이 가장 빛을 발하는 때는 바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현장에서다. 전주지역뿐만 아니라 익산, 김제

위한 봉사활동 성금으로 사용한다.

회원들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지역 어디든지 달려간다. 원주군 송광 정심원, 모악산 진달래집은 이들의 단골 봉사장소다. 또 도내 사찰의 크고 작은 행사에는 비빈인 회원들이 교통봉사를 하면서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돕는다.

이우철 회장은 “차량에 부처님을 모시고 운행하고 있는 회원들은 자부심이 대단하다. 양보운전과 준법운행이 생활화 돼 있다”고 말한다. 박기석 총무는 “차량에 부착된 만(卍)자 표식을 보고 승객이 타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거리의 포교사라는 자부심이 높다”고 덧붙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민들의 발이 되어 전주 시내를 누비는 전주운불련 불자들이 앞에서는 세삼 존경심에 고개가 숙여진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종교지도자 평화선언

불교 기독교 가톨릭 원불교 등 4대 종교인들이 7월 2일 광주 동구 공동 원불교광주교당에서 “한반도 전쟁 반대, 6.15선언지지 이행,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4대종교 지도자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의 기운에 반대한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실현을 위한 길은 평화협정 체결에 있다”며 6·15공동선언 이행, 천안함 침몰에 대한 진실을 규명을 촉구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선언문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한반도를 위기와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언문 발표에는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 대원사 주지 현장 스님,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 등 30여 종단 지도자가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이주 노동자들 위한 법회 한마당

### 스리랑카 붓다라끼따 종정 초청 법회

전국의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불자들을 위한 법회 한마당이 펼쳐졌다.

광주 무각사(주지 정학)와 광주의 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 이사 보혜)는 7월 4일 광주 무각사에서 스리랑카의 가장 큰 종파 아스기리아 종의 종정 붓다라끼따 큰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초청법회에는 광주,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에서 300여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날 법회는 만남의 날이자,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위로하는 자리였다.

붓다라끼따 스님은 법문에서 “한국에서 법문을 하게 돼 기쁘다. 불자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위한 스리랑카 붓다라끼따 스님 초청법회가 7월 4일 광주 무각사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300여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들은 세계 어디에서건 부처님이 오신 의미를 잘 이해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회가 끝난 후 스리랑카 노동자

불자들은 광주의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서 마련한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체육대회에서는 발야구, 줄다리기, 릴레이 달리기 등이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춘계 학술대회 한국차문화학회

한국차문화학회(회장 여연, 백련사 주지)는 7월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차문화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여연 스님,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등 300여 명의 다인들이 참석했다. 여연 스님은 인사말에서 “차 관련 대학이 탄생하고, 전국의 많은 차인 교실이 있지만, 불교계는 차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목포대 조기정 교수의 ‘한국 차문화의 진단과 처방’ 기조강연과 동국대 박희준 교수, 대만 불광대학 요세양조우(游祥洲) 교수, 전남도립대학 이순욱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

###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멋있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사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산하종단 국제 선불교 조계종 / 총무원 : 02)733-5670, 733-5665 / 팩스 : 02)733-5671